

주간 통일정세

2016-42

Contents

I.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III.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 개요

| 분류 | 일자 | |
|--|---|---|
| 정치 | 10.15 | 北김정은, 수해지 청소년에 아영훈련 혜택...방문 임박한듯(연합뉴스) |
| | | 北 김정은, 태국 국왕 서거에 조전(연합뉴스) |
| | | 北 공석웅, '명예손남' 신분으로 외교단 체육경기 관람(연합뉴스) |
| | | 北, '습지보전협약' 가입 시동거나...금강산서 세미나 개최(연합뉴스) |
| | | 北, 14억원에 英해군 매수해 기밀유출 시도...태영호 망명계기(연합뉴스) |
| | | 北, 한미 선제타격 징후 보이면 완전 불바다 만들 것(연합뉴스) |
| | 10.17 | 北외무성 관리, 6~8차 핵실험 있을것...선제타격 美독점물 아냐(연합뉴스) |
| | | 北, 타도제국주의동맹 90주년 중앙보고대회...지도부 총출동(종합) |
| | | 北, 타도제국주의동맹 90년 맞아 핵보유국 주장 되풀이(연합뉴스) |
| | | 北매체 "한미 전·현직 대통령이 북핵 1등 공신" 조롱(연합뉴스) 북한 "美, 합법적 우주활동 문제 삼는 것은 언어도단" 주장(연합뉴스) |
| | 10.18 | 北김정은, 11일만에 공개석상...류경안과종합병원 시찰(연합뉴스) |
| | | 北외무성 한성렬 미국국장 말레이행...美인사와 비공식대화할듯(연합뉴스) |
| | 10.19 | 김정은, 집권 5년 동안 김일성 생가 방문 안 해(연합뉴스) |
| | | 北 박봉주 총리, 홍수피해 복구현장 시찰(연합뉴스) 北, 사소한 침략징후라도 보이면 청와대·서울 초토화 위협(연합뉴스) |
| 10.20 | 北김정은, 수해지역 이재민들에 담요 전달(연합뉴스) | |
| | 北, 주체위성 많이 쏘아올릴 것...장거리미사일 연내 발사 예고(연합뉴스) | |
| 10.21 | 北 리용선 ITF총재, 내년 평양 세계태권도대회 누구든 오라(연합뉴스) | |
| 경제 | 10.15 | 북한, 수산물 중국에 팔아 연간 3천억 원 외화벌이(연합뉴스) |
| | | 대북 관광제재 추진에도...북중접경선 北관광코스 속속 개발(연합뉴스) |
| | 10.17 | 북한 노후주택 재건축 활발...부동산 가격 상승세(연합뉴스) |
| | 10.18 | 대북제재에도 北 남포항 물동량 변화 없어(연합뉴스) |
| | | 나포 中 어선에 인공기...북한에 입어료 내고 조업(연합뉴스) |
| | 10.19 | 北, 제재속 中·러시아에 수산물 수출 대폭 늘려(연합뉴스) |
| | 10.20 | 北, 백두산관광철도 공사 재개...중서 레일 수입(연합뉴스) |
| 北 고려항공, 블라디보스토크 운항 주 1회로 줄여(연합뉴스) 北고려항공 내달부터 베이징-평양 주3회로 줄어든다(연합뉴스) | | |

| | | |
|----------|-------|---|
| 사회 문화 | 10.21 | 中 훈춘시, 北 관련 기반시설사업 추진 활발(연합뉴스) |
| | 10.17 | 북한서 제일·재중동포보다 南탈북민 송금 많아(연합뉴스) |
| | 10.15 | 北, '김정은 죽는다' 러셀 발언에 "담비면 백악관부터 없어져"(연합뉴스) 中, 훈춘에 나진항 연결할 국제버스터미널 착공(연합뉴스) 러 언론, 평양 주재 중국 외교관 줄고 러시아 외교관 늘어(연합뉴스) |
| 외교 국방 | 10.16 | 北, 美전투기 격추 가상영상 보도...파리 잡는것보다 쉬워(연합뉴스) 美, 北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실패...강력 규탄(연합뉴스) 中관영언론 北무수단 시험발사 보도...북한 추가 핵실험 우려(연합뉴스) 北미사일 발사 실패에 日방위상 "일본 안보에 즉각 영향 없다"(연합뉴스) 러 국경수비대, 불법조업 北어선에 총격...1명 사망·8명 부상(연합뉴스) 북한의 거둬들인 리브콜에도 동남아 전통우방국 반응은 '짜늘'(연합뉴스) 北, 한미훈련 종료일에 무수단미사일 발사...공중폭발로 실패(연합뉴스) |
| | 10.17 | 北수해 참상에 中주민의 김정은 반대 정서 심화(연합뉴스) 日, 北미사일 대비 2조~3조원대 방어장비 조기 도입(연합뉴스) 러 당국, 불법 조업 北 선원 조사...단속관 1명 부상 추가 확인(연합뉴스) 日언론 "北무수단, 기술적 불안정성...추가 시험 가능성"(연합뉴스) 軍, 北 내륙서 무수단 발사한 이유 있을 것...평가중(연합뉴스) |
| | 10.18 | 美백악관-국무부, 北무수단 발사·추가 핵실험 위협 강력 규탄(연합뉴스) 北 "미국 조작 제재결의, 사실상 전쟁 통고장"(연합뉴스) 美국무부 새 대북정책특별대표에 한국계 조셉 윤...성감과 맞교대(연합뉴스) 中 "北미사일발사,안보리결의 위배...유관국, 정세긴장행위 말라"(연합뉴스) 정중욱, 북한을 전략적 부담으로 보는 중국내 시각 많아져(연합뉴스) 中 연변 방사능오염 수치조사...北핵실험 영향 여부 관심(연합뉴스) 日 관방,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 부과 위해 관계국과 연대(연합뉴스) 안보리, 北미사일 발사 규탄...중대한 추가조치 취할 것(연합뉴스) 우간다 외교차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전면 이행 준비중(연합뉴스) 北선박 탄자니아 국적 취득, 현지 등록체계 허접 때문(연합뉴스) 美전문가 "北, 지금 속도대로라면 내년 무수단 전력화도 가능"(연합뉴스) 38노스, 北 로켓엔진시험장에서 꾸준한 활동(연합뉴스) 北, 2020년 말까지 핵무기 최대 79개 제조 가능(연합뉴스) |
| | 10.19 | CIA 前 관리, 북한이 미국 최대 위협...북핵 과소평가 말아야(연합뉴스) 北, 美 대선에 큰 관심...트럼프 당선 기대(연합뉴스) 올해 안보리 언론성명 최다 규탄국은 북한...11건(연합뉴스) |

| | |
|-------|--|
| | 멕시코 당국, 北선박 무두봉호 해체작업 들어가(연합뉴스) |
| | 국정원 “北, 올해 핵·미사일에 2억불…사이버공격 급증”(연합뉴스) |
| 10.20 | 케리, 민생용 北석탄거래 허접 차단…세컨더리 보이콧 배제안해(연합뉴스) |
| | 北 “미국, 선제타격 명분으로 북 인권 문제 삼아”(연합뉴스) |
| | 중국, 北탄도미사일 발사에 “당사국 긴장 조성 삼가야”(연합뉴스) |
| | 탄자니아, 북한 선박의 탄자니아 국적 취득 부인(연합뉴스) |
| | 한미 ‘북핵 확장억제’ 합의에 北 ‘괘 타격’ 무수단 발사로 응수(연합뉴스) |
| 10.21 | 美백악관 “北미사일 도발, 강력한 안보리 추가제재 필요성 응변”(연합뉴스) |
| | 존 메릴 美국무부 전 실장, 평화·안정 관점 북핵 바라봐야(연합뉴스) |
| | 러 전문가, 北 병진정책은 효과적…새 타협안 빨리 마련해야(연합뉴스) |
| | 반기문 “北, 작년 7월부터 평양주재 외교관·유엔직원 감시”(연합뉴스) |
| | 北 “유엔, 인류에게 희망 아닌 실망 주고 있다” 역지(연합뉴스) |

■ 주간 동향

1. 정치

가. 김정은 동향

2016. 10. 15.

■ 北김정은, 수해지 청소년에 아영훈련 혜택…방문 임박한듯(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함경북도 수해지역 청소년들에게 최신 시설의 송도원국제소년단아영소에서 합숙훈련을 하도록 혜택을 베풀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5일 “김정은 원수님이 지난 9월 말 회령시, 무산군, 연사군, 경흥군, 경원군, 온성군을 비롯한 함북도 북부 피해 지역의 학생 소년들이 뜻밖에 덮쳐 든 자연재해로 부모와 보금자리를 잃은 마음속 아픔과 눈물을 가시고 송도원국제소년단아영소에서 행복한 아영생활을 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고 보도함.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수해지역 청소년들이 아영을 마치고 돌아갈 즈음에 김정은이 수해현장을 방문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민심이 흥흥해진 수해지역 청소년들에게 먼저 과격적인 혜택을 베풀어 주민들의 민심을 달랜 이후에 방문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함.

■ 北 김정은, 태국 국왕 서거에 조전(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13일 서거한 푸미폰 아둔야뎃 태국 국왕을 애도해 마하 와치랄롱꼰(64) 왕세자에게 15일 조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김 위원장은 조전에서 “나는 타이(태국)왕국 국왕 부미볼 이둘리아테즈(푸미폰 아둔야뎃) 폐하(폐하)가 서거하였다는 슬픈 소식에 접하여 전하와 그리고 전하를 통하여 유가족들과 타이왕국 정부와 인민에게 심심한 애도와 깊은 위문을 표한다”고 전함.
- 그는 이어 “부미볼 이둘리아테즈 폐하는 조선(북한)과 타이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귀중히 여기고 관계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면서 “폐하의 고귀한 업적은 진보적 인류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라고 덧붙임.

2016. 10. 18.

■ 北김정은, 11일만에 공개석상…류경안과종합병원 시찰(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새로 건설된 류경안과종합병원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공개 석상에 모습을 나타내기는 11일만임.

- 김 위원장은 시찰 현장에서 “설계도 잘 되고 시공도 최상의 수준”이라며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 류경치과병원, 옥류아동병원을 비롯한 병원들이 집중되어있는 문수 지구에 현대적인 류경안과종합병원까지 일떠섬으로써 이곳이 병원촌으로서의 면모를 더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기뻐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함.
- 또 그는 “인민들이 류경안과종합병원이 문을 열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있었는데 사소한 빈틈이 없도록 병원운영준비를 더 착실히 하여 10월말에 개원식을 진행하고 11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하라”고 지시했다고 통신은 밝힘.

2016. 10. 19.

■ **김정은, 집권 5년 동안 김일성 생가 방문 안 해(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집권 5년간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생가인 만경대를 단 한 번도 찾지 않아 주민들의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 보도함.
- 북한의 한 소식통은 RFA에 “지난 7일 김정은이 (김일성 생가 지역인) 만경대구역에 있는 만경대혁명사적지 기념품공장을 현지지도했지만, 김일성의 고향집은 찾지 않았다”면서 “생전에 김일성이 김정은의 친모 고용희와 그가 낳은 자식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한다”고 주장함.
- 함경북도의 소식통은 “김정일 사망 후 권력을 넘겨받은 김정은이 처음 들린 곳이 만경대 혁명학원이었다”면서 “당시에도 평양시민들 속에서 만경대까지 찾아온 김정은이 왜 지척에 있는 김일성 고향 집엔 왜 들리지 않았는지 상당히 의아했었다”고 덧붙임.

2016. 10. 20.

■ **北김정은, 수해지역 이재민들에 담요 전달(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함경북도 수해지역 이재민들에게 담요를 전달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0일 보도함.
- 중앙방송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는 복구전투의 첫 시작부터 수많은 건설용 설비, 자재와 식료품들, 교복과 학용품들을 보내신 데 이어 이번에는 담요까지 안겨주시었다”고 전함.
- 방송은 또 “군리 인민병원과 요양소, 보양소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친어버이 정이 스민 담요에 얼굴을 묻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흘렸다”고 김정은을 찬양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6. 10. 15.

■ 北 궁석웅, '명예손님' 신분으로 외교단 체육경기 관람(연합뉴스)

- '숙청설'이 제기됐던 궁석웅(72)이 '명예손님' 신분으로 평양에서 열린 외교단 체육경기를 관람함.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재 외교단 체육경기가 나라들 사이의 친선과 우의를 보다 두터이하며 네 번째로 평양에서 열렸다”며 “궁석웅 전 외무성 부상을 비롯한 명예손님들, 관계부문 일군(일꾼)들, 주조(북한주재) 외교대표들, 국제기구대표들, 대사관가족들, 체육애호가들이 축구결승경기를 관람하였다”고 보도함.
- 중앙통신이 궁석웅을 ‘전 외무성 부상’, ‘명예손님’ 등으로 호칭한 것으로 미뤄볼 때 숙청설이 제기됐던 그는 외무성 부상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 확실함. 그가 다른 직책을 맡았을 가능성도 제기됨.

2016. 10. 17.

■ 北외무성 관리, 6~8차 핵실험 있을것...선제타격 美독점물 아냐(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 관리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6~8차 추가 핵실험과 선제 핵타격 가능성 등을 경고함.
- 미국 NBC방송은 16일(현지시간) 외무성 미국연구소의 리용필 국장이 기자에게 “미국은 우리나라와 수도, 지도자를 겨냥하는 핵무기를 갖고 있다”며 “미국으로부터의 핵 위협이 있다면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평양발로 보도함.
- 리용필은 “선제 핵타격은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라며 “미국이 선제타격을 하려는 것을 보면 우리가 먼저 할 것이다. 우리는 기술이 있다”고 말함.

2016. 10. 18.

■ 北외무성 한성렬 미국국장 말레이행...美인사와 비공식대화할듯(연합뉴스)

- 한성렬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이 중국 베이징 국제공항에서 목격됐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18일 보도함.
- 통신은 한 국장이 미국인사들과의 비공식 대화를 위해 말레이시아로 향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함. 한 국장이 만날 인물이 누구인지는 불투명하다고

설명함.

- 소식통에 따르면 한 국장은 전직 미국 관리들이나 북한 문제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으며 논의는 비공식 틀로 완전히 비밀리에 이뤄질 가능성이 큼.

2016. 10. 19.

■ **北 박봉주 총리, 홍수피해 복구현장 시찰(연합뉴스)**

- 북한의 박봉주 내각 총리가 지난 8월 태풍 ‘라이언록’으로 홍수피해를 본 함경북도 지역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이날 “박봉주 내각 총리는 함경북도 회령시, 연사군, 무산군의 피해복구 정형(상황)을 현지에서 료해(시찰)하였다”고 밝힘.
- 중앙통신은 박 총리의 현지시찰 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음.

2016. 10. 21.

■ **北 리용선 ITF총재, 내년 평양 세계태권도대회 누구든 오라(연합뉴스)**

- 북한의 리용선(52) 국제태권도연맹(ITF) 총재 겸 조선올림픽부위원장이 “내년 9월 열릴 예정인 ‘제20회 평양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든 국적을 불문하고 초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캐나다의 한인 언론인이 21일 연합뉴스에 알려왔음.
- 태권도 8단으로 캐나다에서 열리는 태권도 세미나 참가차 현지시간으로 지난 18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몬트리올과 토론토를 방문 중인 리 총재는 평소 자신과 알고 지내는 한인 언론인 송광호 씨와 만나 이같이 말함.
- 함북 청진 출신인 그는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했고, 평양조선체육대학 태권도학부 교수, 국제무도경기위원회(IMGC) 위원장을 맡고 있음.

다. 공식행사

2016. 10. 17.

■ **北, 타도제국주의동맹 90주년 중앙보고대회...지도부 총출동(종합)**

- 북한이 타도제국주의동맹(줄여서 트.그, 트드로 읽음) 90주년 기념일을 하루 앞둔 16일 분위기 띄우기에 나섬.
- 북한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 조선중앙TV는 이날 “김일성 동지께서 주체형의 혁명

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신 90돌 기념 중앙보고대회가 16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다”고 밝힘.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주석단에 자리했으며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사회를, 김기남 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보고를 맡았다고 이들 매체는 전함.

라. 주요 기관 행위

2016. 10. 15.

■ 北, ‘습지보전협약’ 가입 시동거나…금강산서 세미나 개최(연합뉴스)

- 북한이 람사르협약에 가입해 금강산 삼일포 일대 등을 보호습지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북한의 대외선전용 웹사이트 ‘조선의 오늘’은 15일 “지난달 4일부터 7일까지 국토환경보호성 주최로 금강산에서 습지보호 강습(세미나)이 진행되었다”면서 “강습은 습지보호의 중요성과 국제적으로 의의를 가지는 습지를 람사르 목록에 등록하는 기준과 절차 등을 기본 내용으로 하여 진행되었다”고 보도함.
- 행사에 참석한 한스자이텔재단 측은 “북한은 여전히 동북아의 자연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원산-금강산 관광특구의 관광 전략 중의 하나로 생태관광 투어의 도입이 계획되어 있다”고 설명함.

■ 北, 14억원에 英해군 매수해 기밀유출 시도…태영호 망명계기(연합뉴스)

- 북한이 영국 국방부 관리와 해군 장교를 100만 파운드(약 14억원)에 매수해 영국의 핵 관련 기밀을 빼내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에 압박을 느낀 태영호 주(駐)영국 북한대사관 공사가 탈북을 결심했다는 주장이 나왔음.
- 영국 선데이 익스프레스는 영국 정보기관의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태 공사가 최근 한국과 미국, 영국의 정보 관리들과 면담에서 이렇게 털어놓았다고 16일(현지시간) 보도함.
- 태 공사는 이러한 지시를 따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느껴 큰 압박을 받았고, 이는 탈북을 결심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이 매체는 전함.

2016. 10. 17.

■ 北, 타도제국주의동맹 90년 맞아 핵보유국 주장 되풀이(연합뉴스)

- 북한이 17일 타도제국주의동맹(줄여서 트.그, 트드로 읽음) 결성 90주년 기념일을 맞아 “핵보유국의 지위에 맞게 대외관계를 주동적, 다각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주장함.
-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이날 ‘트.그 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가자’는 제목의 1면 사설에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세계지주화 위업 실현을 적극 추동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힘.
- 노동신문은 전날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된 ‘트.그’ 결성 90돌 기념 중앙보고대회 소식과 사진을 2면에, 김기남 당 중앙위 부위원장의 보고 내용과 김일성 칭송 기사를 3면에 실는 등 전체 6면 가운데 절반가량을 ‘트.그’ 관련 내용으로 채웠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2016. 10. 15.

■ 北, 한미 선제타격 징후 보이면 완전 불바다 만들 것(연합뉴스)

- 북한은 한미 양국이 선제타격 징후를 보인다면 미국 본토와 태평양 일대 군사기지, 남한을 완전 불바다, 완전 폐허로 만들겠다고 15일 위협함.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개인 논평을 통해 “최근 미국과 괴뢰들이 감행하고 있는 전쟁연습들은 북침 선제타격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괴뢰 패당이 사소한 선제타격 징후라도 보인다면 그것은 백두산 혁명강군의 즉시적인 군사적 대응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 논평은 또 “지금 박근혜 역적패당이 미국의 ‘싸드’만 가져다 놓으면 우리의 공격을 막을 수 있을 것처럼 떠들어대지만 사실 그것은 쨌진 쪽박을 쓰고 벼락을 막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남조선에서도 미국과 박근혜 역적패당의 위험한 북침 선제타격 기도에 대한 우려와 반대 기운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고 궤변을 이어감.

2016. 10. 17.

■ 北매체 “한미 전·현직 대통령이 북핵 1등 공신” 조롱(연합뉴스)

-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을 ‘북핵 1등 공신’이라고 조롱함.
- 북한 인터넷 선전 매체 ‘메이리’는 17일 “한때 북의 주민들속에서는 미국의 전 대통령 조지 부쉬(조지 W. 부시)를 놓고 ‘바보’, ‘저능아’, ‘팔삭둥이’라는 우스개말이 나돌았다고 한다”며 “핵무기가 없는 조선반도(한반도)에서 비핵국가로 살려고 했던 북으로 하여금 세계적으로 몇 안되는 핵보유국의 대렬(대열)에 꼭 들어서라고 떠밀어주는 역사적인

공적을 다름아닌 부위가 세웠다는 의미에서였다”고 주장함.

- 이어 “이젠 북이 명실상부한 핵강국의 지위에 올라섰는데 ‘북핵공신’들도 그쯤하고 좀 쉴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며 “늦은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괜한 고생을 그만두고 착실히 제 방에 앉아서 뉴턴(뉴턴)의 제3법칙과 비슷한 ‘대북제재의 역작용원리’를 학습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비꼬았음.

■ 북한 “美, 합법적 우주활동 문제 삼는 것은 언어도단” 주장(연합뉴스)

- 북한은 지난 13일(현지시각) 개최된 유엔총회 제4위원회 회의에서 미국이 북한의 ‘합법적 우주활동’을 걸고 드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비난함.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우리나라 대표가 13일 4위원회(특별정치 및 비식민지화) 회의에서 안건 ‘우주의 평화적 리용(이용)에서 국제적 협조’ 토의 시 연설하였다”고 보도함.
- 북한 대표는 이날 “지구 상에 존재하는 그 어느 국제법에도 탄도로켓(로켓) 기술을 이용한 위성 발사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반으로 된다고 규제하고 있는 조항은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공화국의 정당한 우주개발을 가로막아보려고 갖은 발악을 다 하고 있다”고 주장함.

2016. 10. 19.

■ 北, 사소한 침략징후라도 보이면 청와대·서울 초토화 위협(연합뉴스)

- 북한은 19일 한미가 사소한 침략징후라도 보이면 무자비한 핵 선제타격이 가해지고 이럴 경우 청와대와 서울은 흔적도 없이 초토화될 것이라고 위협함.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선제타격은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에 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니다. 우리는 적들의 무분별한 침략전쟁 도발책동에 대처하여 혁명무력의 전쟁수행방식을 선제공격으로 전환한 지 오래”라면서 이같이 주장함.
-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 중인 대북압박외교를 통한 북핵 해법과 관련해서는 “북핵해법에 대해 말한다면 우리를 핵보유어로 떠민 근원부터 제거하는 것”이라며 “미국과 괴뢰패당의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북침핵전쟁 도발책동이 종식되지 않는 한 우리 국가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는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임.

2016. 10. 20.

■ 北, 주체위성 많이 쏘아올릴 것…장거리미사일 연내 발사 예고(연합뉴스)

- 북한이 20일 느닷없이 더 많은 위성을 쏘아 올리겠다고 선언한 것은 사실상 장거리 미사일의 연내 발사를 예고한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옴.
- 북한 국가우주개발국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통해 “우리는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주체위성들을 더 많이 쏘아 올리며 광활한 우주정복을 위한 힘찬 진군을 다그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보도함.
-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최근 “북한은 언제든 핵이든 미사일이든 (도발을) 감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함.

2. 경제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조치

2016. 10. 20.

■ 北, 백두산관광철도 공사 재개...중서 레일 수입(연합뉴스)

- 북한이 핵심 자재인 철길 레일이 없어 지난 5월 중단된 백두산관광철도 공사를 최근 재개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20일 보도함.
-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관광철도 건설에 투입됐다 가을건이에 동원됐던 ‘백두산청년돌격대원’들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앞두고 일제히 철도 건설장으로 돌아왔다고 RFA에 밝힘.
- 이 소식통은 “아직 철길 공사는 시작되지 않았지만, 돌격대원들이 작업준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말함.

다. 경제 상황

2016. 10. 17.

■ 북한 노후주택 재건축 활발...부동산 가격 상승세(연합뉴스)

- 북한에서 최근 노후주택들에 대한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음.
- 정은이 경상대 연구교수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우리민족서로돕

기운동과 경기도 등 공동주최 ‘2016 대북지원 국제회의’에서 ‘북한 주민 생활의 변화상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함.

- 한편 린다 루이스 미국친우봉사회 중국-북한사업단 대표는 이날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변화하는 대북지원 환경’이라는 발표에서 “지난 9월 홍수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자연재해 취약성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북한 내부의 인도주의적 필요에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는 계기가 됐다”고 언급함.

라. 대외 경제 관계

2016. 10. 15.

■ 북한, 수산물 중국에 팔아 연간 3천억 원 외화벌이(연합뉴스)

- 북한군이 최근 소형 목조선을 다수 만들어 어민에게 빌려주고 활발하게 외화벌이에 나서도록 하고 있다고 일본 마이니치(毎日)신문이 북한 인민군 관계자를 인용해 15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서해와 동해 양쪽 항구에 소형 선박 약 3천 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어민들은 3~4명씩 같은 조를 이뤄 군으로부터 선박을 빌려 해산물을 잡음.
- 어민들은 해산물을 북한 중개인에게 팔아 얻은 외화 일부를 군에 선박 임대료 명목으로 낸다고 북한군 및 경제 관계자는 설명함.

■ 대북 관광제재 추진에도...북중접경선 北관광코스 속속 개발(연합뉴스)

- 국제사회가 북한의 5차 핵실험 응징을 위한 고강도 대북 제재의 하나로 북한 관광 차단을 추진하고 있으나 북중접경에서는 새로운 북한관광 코스가 속속 개발되고 있음.
- 북한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달러가 김정은 정권의 돈줄 역할을 하는 탓에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산 광물 수출의 전면 통제를 비롯해 북한관광 차단, 북한근로자 수출 억제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지만 중국에선 이에 이랑곳없이 대북교류가 확대되는 형국임.
- 한편, 미국이 최근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를 끌어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인적·물적 교류 부문의 제재를 위해 관광산업 차단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짐.

2016. 10. 18.

■ 대북제재에도 北 남포항 물동량 변화 없어(연합뉴스)

- 유엔의 대북 제재에도 북한 남포항의 물동량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18일 보도함.
- 미국의 민간 위성업체인 디지털 글로브가 지난 8월 9일 남포항을 찍은 위성사진에는 항구 옆 야적장이 컨테이너들로 가득 차 있었음.
- 한국무역협회 집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북·중 교역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0.6% 증가함.

■ 나포 中 어선에 인공기…북한에 입어로 내고 조업(연합뉴스)

-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다가 우리 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에 오성기 대신 북한의 인공기가 걸려 있어 공금증이 일고 있음.
- 18일 인천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께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북서방 33km 해상에서 서해 NLL을 5km 침범해 조업한 혐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중국어선 3척이 나포됨.
- 앞서 해경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중국선원들이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아 공용 화기를 사용하지는 않았음.

2016. 10. 19.

■ 北, 제재속 中·러시아에 수산물 수출 대폭 늘려(연합뉴스)

-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 올해 들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수산물 수출을 대폭 늘렸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9일 보도함.
- 한국무역협회는 중국 해관총서(세관) 자료를 토대로 북한의 올해 1~8월 대(對) 중국 수산물 수출액이 약 1억1천만 달러(1천236억원)로 집계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6천500만 달러)과 비교해 약 70% 늘어난 수준이라고 VOA는 전함.
- VOA는 북한의 수산물 수출이 급증한 것은 국제사회의 제재로 외화벌이가 어려워지면 서 수산물 수출에 힘을 쏟은 결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고 전함.

2016. 10. 20.

■ 北 고려항공, 블라디보스토크 운항 주 1회로 줄여(연합뉴스)

- 북한 고려항공이 이달 들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노선의 운항횟수를 주 1회로 줄였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0일 보도함.
- VOA가 항공기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FlightRadar24)

자료를 확인한 결과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JS271편과 평양으로 돌아오는 JS272편은 이달 들어 주 1회 운항기록을 남긴 것으로 나타남.

- RFA는 “북한은 최근 중국 어선에 입어료를 받고 어장을 팔아넘기고 있다”며 “중국 어선이 북한 수역을 차지하면서 정작 북한 어선은 러시아 해역으로의 불법 조업에 내몰려 목숨을 잃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평가함.

■ 北고려항공 내달부터 베이징-평양 주3회로 줄어든다(연합뉴스)

- 북한 유일의 항공사인 고려항공이 내달부터 평양-베이징 구간을 주 3회로 감편함. 이는 동절기 수요 감소에 따른 운항 편수 축소로 보이지만 최근 대북 제재에 따른 영향이 미쳤을 가능성도 있음.
- 20일 베이징 항공업계에 따르면 고려항공은 지난 7월 중허순부터 평양-베이징 구간을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등 주 5회 운항 중이었으나 11월부터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등 주 3회로 줄이기로 함.
- 이런 감편은 내년 2월까지 이어진 뒤 특별한 일이 없다면 내년 3월부터 주 4회로 늘어날 것으로 보임.

2016. 10. 21.

■ 中 훈춘시, 北 관련 기반시설사업 추진 활발(연합뉴스)

- 북-중 접경지역에 위치한 중국 지린(吉林) 성 훈춘(琿春)시가 북한 관련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1일 보도함.
- 훈춘시는 1년 간의 공사 끝에 최근 취안허(圈河)세관과 북한 나선특별시 원정리를 연결하는 신두만강대교를 최근 개통함.
- 이밖에 훈춘과 나진항을 연결하는 도로 개선 사업도 추진 단계에 들어갔으며, 훈춘시 내 샤투오즈세관과 북한 경원을 잇는 다리를 새로 건설하는 방안 등도 추진되고 있음.

3. 사회문화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라. 사회 동향

2016. 10. 17.

■ 북한서 재일·재중동포보다 南탈북민 송금 많아(연합뉴스)

- 최근 북한에서 일본이나 중국에 친척을 둔 주민보다 한국에 탈북민 가족을 둔 주민이 더 많은 송금을 받음으로써 '한라산 줄기'라는 은어가 퍼지고 있다고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가 17일 보도함.
-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은 이 매체에 “최근 북한에서는 ‘후자산 줄기’라고 부르는 재일동포나 ‘장백산 줄기’로 부르는 재중동포보다 한국 탈북민 가족이 보내는 송금이 우위를 차지하면서 ‘한라산 줄기’란 은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전함.
- 이어 소식통은 “지금은 탈북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다”면서 “라디오나 USB를 통한 외부정보가 한국 사회에 대한 (북한) 주민의 인식을 완전히 뒤바꿔놨다”고 주장함.

4. 외교국방

가. 북·미 관계

2016. 10. 15.

■ 北, '김정은 죽는다' 러셀 발언에 “덤비면 백악관부터 없어져”(연합뉴스)

- 북한은 15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 ‘핵 도발을 감행하면 죽는다’고 경고한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차관보의 발언에 대해 “미국이 우리에게 덤벼드는 그 순간 백악관부터 없어지게 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함.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러셀 차관보의 발언을 “우리에 대한 최고의 도전이며 우리에게 한 선전포고를 실행에 옮기는 적대 행위”라고 규정한 뒤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앞서 러셀 차관보는 12일 기자 간담회에서 “아마도 (북한이) 핵 공격을 수행할 향상된

능력을 가질 수 있겠지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그러고 나면 바로 죽는다”고 말함.

2016. 10. 16.

■ **北, 美전투기 격추 가상영상 보도…파리 잡는것보다 쉬워(연합뉴스)**

- 북한이 지대공 미사일로 미군의 전투기를 가상으로 격추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16일 북한 매체에 등장함.
- 북한 대남 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의 UCC(순수 제작물) 코너에는 이날 노동적위군 김철별 대원 이름으로 된 ‘우리의 경고 똑똑히 새겨들으라’라는 제목의 2분 14초 분량의 영상이 실렸음.
- 앞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5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 “핵 도발을 감행하면 죽는다”고 경고한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차관보의 발언에 대해 “미국이 우리에게 덤벼드는 그 순간 백악관부터 없어지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는 내용의 성명을 내기도 했음.

■ **美, 北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실패…강력 규탄(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 15일(한국시간)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미국 군 당국이 확인함.
- 미 전략사령부는 15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북한이 한국시간으로 15일 오후 12시 33분 북한 평안북도 구성시 부근에서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으나 실패했다”고 밝힘.
- 미 전략사령부는 이 미사일이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했으며, 북미지역에는 위협이 되지 않았다고 덧붙임.

2016. 10. 18.

■ **美백악관-국무부, 北무수단 발사-추가 핵실험 위협 강력 규탄(연합뉴스)**

- 미국 백악관은 17일(현지시간) 북한의 최근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강력히 규탄함.
-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미 전략사령부가 지난 15일 북한의 실패한 탄도 미사일 발사 시험을 탐지했다”면서 이같이 밝힘.
- 어니스트 대변인은 “북한이 이런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할 때마다 매번 수도 없이 말해 왔듯이 우리는 이번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는 탄도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말함.

■ **北 “미국 조작 제재결의, 사실상 전쟁 통고장”(연합뉴스)**

- 북한은 18일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재 조치가 북한을 고립 압살하는 내용을 포함한 사실상 전쟁통고장이라고 반발함.
- 북한 국제문제연구소는 이날 A4 용지 10장 분량의 고발장에서 “미국이 조작해낸 대조선(대북) 제재결의들은 경제 전반을 질식시키고 인민생활에 엄청난 난관을 조성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는 내용으로 일관된 극악무도한 협박문서, 사실상의 전쟁통고장”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아울러 “우리는 어제도 그러하였지만, 오늘도, 래일(내일)도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제재몽둥이를 자력자강의 무쇠 철퇴로 단호히 꺾어버릴 것”이라고 위협함.

■ **美 국무부 새 대북정책특별대표에 한국계 조셉 윤…성김과 맞교대(연합뉴스)**

- 한국계인 조셉 윤(62) 전 말레이시아 주재 미국대사가 신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로 선임돼 17일(현지시간)부터 업무를 공식 시작함.
- 주한미국대사관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조셉 윤 말레이시아 주재 미국 대사가 새로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및 한국, 일본 담당 부차관보로 워싱턴DC에 복귀했다. 많은 활약을 기대한다”고 밝힘.
- 외교 소식통도 18일 “신임 윤 특별대표가 어제부터 일을 시작했다”고 확인함.

2016. 10. 19.

■ **CIA 前 관리, 북한이 미국 최대 위협…북핵 과소평가 말아야(연합뉴스)**

- 북한이 미국의 최대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차기 미국 대통령은 북핵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음.
- 제이미 미시 미국 중앙정보국(CIA) 전 부국장은 18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의 ‘영향력 있는 여성 서밋’에 참석해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는 우리가 신경을 더 써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강조함.
- 미시 전 부국장은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쏠 미사일 능력을 갖춰가는 사실을 거론하며 “미국의 대통령 당선인은 전임자가 마주하지 않은 수준의 북한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함.

■ **北, 美 대선에 큰 관심…트럼프 당선 기대(연합뉴스)**

- 북한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당선을 기대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최근 방북했던 일본 언론인을 인용해 19일 보도함.
- 지난달 말 8일간의 일정으로 평양과 원산을 다녀온 후쿠다 게이스케 일본 '주간 동양경제' 편집위원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부나 공적 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많고, 그 결과를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것 같았다”고 말함.
- 후쿠다 씨는 “미국 민주당 정권이 계속 권력을 잡아왔기 때문에 뭔가 변화를 기대하면서 결과를 지켜보는 것 같다”며 “어떤 사람은 트럼프가 되면 뭔가 확실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고 밝힘.

2016. 10. 20.

■ **케리, 민생용 北석탄거래 허점 차단…세컨더리 보이콧 배제안해(연합뉴스)**

-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19일(현지시간) 민생목적용 북한 석탄 거래 차단 등 대북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며, 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기관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의 본격 시행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힘.
- 케리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미 국무부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 후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최후의 수단인 군사적 선택보다는 제재상의 허점을 차단하는데 우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함.
- 케리 장관은 “우리가 확장억제와 관련해 취하는 이번 조치는 (민주, 공화당) 정부를 초월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동맹을 방어하겠다는 우리의 준비태세와 결의, 투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라고 밝힘.

■ **北 “미국, 선제타격 명분으로 북 인권 문제 삼아”(연합뉴스)**

- 북한은 20일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선제타격의 명분으로 인권문제를 거론하고 있다고 반발함.
- 북한 ‘조선인권연구협회’는 이날 성토문을 통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인권문제를 반공화국 제재 압살의 마지막 주패장(카드)로 삼으면서 우리에게 대한 군사적 선제타격의 합법적 명분을 만들어보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한편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13일 국제 스포츠 무대 참여 금지 등 북한에 ‘도덕적 제재’를 실시해야 한다는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발언에 대해 “무지몽매한 인간, 정신병자의 궤변”이라고 거칠게 비난함.

2016. 10. 21.

■ **美백악관 “北미사일 도발, 강력한 안보리 추가제재 필요성 응변”(연합뉴스)**

- 북한이 또 미사일 도발에 나선 데 대해 미국 백악관이 강하게 규탄한 것은 물론, 이번 일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더 강력한 추가제재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함.
- 2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에릭 슐츠 백악관 부대변인은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전날 미사일 도발이 “지난 9월 9일에 있었던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가 추가적인 강력한 제재를 취할 필요성을 응변하고 있다”고 말함.
- 전날 게리 로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슐츠 백악관 부대변인의 언급과 비슷한 내용으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비판한 뒤 “우리는 이런 도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제사회의 결의를 더욱 강화하도록 유엔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함.

■ **존 메릴 美국무부 전 실장, 평화·안정 관점 북핵 바라봐야(연합뉴스)**

- 존 메릴(John Merrill) 전 미국 국무부 동북아실장(한국 분석관)은 21일 “북한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까지 생각해 접근해야 한다”고 밝힘.
- 존 메릴 전 실장은 이날 제주칼호텔에서 열린 제주 4·3 평화포럼의 주제발표에서 “제주 4·3 사건은 폭력이 통제를 벗어나 악화하기 쉽다는 것을 보여준 일종의 경고로, 북핵 문제에서도 이런 가능성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함.
- 그는 “양측은 선제공격이나 즉각적인 군사 태도를 취하는 대책을 경솔하게 논의해서는 안 된다”고도 함.

나. 북·중 관계

2016. 10. 15.

■ **中, 훈춘에 나진항 연결할 국제버스터미널 착공(연합뉴스)**

- 중국이 북한 나진항과 고속도로를 통해 연결되는 지린(吉林) 성 훈춘(琿春) 시에 대규모 국제버스터미널을 착공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 보도함.
- 훈춘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0일 국제버스여객터미널 착공식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고 방송은 전함.
- 고속철도와 연계한 국제버스터미널이 북한을 주요 영업권역 중 하나로 삼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주목된다고 방송은 지적함.

2016. 10. 16.

■ **中관영언론 北무수단 시험발사 보도…북한 추가 핵실험 우려(연합뉴스)**

- 중국 관영언론은 16일 북한의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 발사를 주요 뉴스로 보도함.
-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망은 외신보도와 미 국방부 발표를 인용해 북한이 15일 무수단 중거리미사일 1발을 발사했으나 실패했다고 보도함.
- 환구망은 북한이 핵기술 개발과 탄도미사일 개발에서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지만 올들어 이미 수차례 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으며 외부에서는 북한이 다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함.

2016. 10. 17.

■ **北수해 참상에 中주민의 김정은 반대 정서 심화(연합뉴스)**

- 북-중 접경지역의 최근 대규모 수해복구 과정에서 북한 내 참상이 알려지면서 중국 주민들에게 김정은 정권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음.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7일 현지 소식통들을 인용해 “중국 조선족들을 중심으로 반(反)김정은 정서가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보도함.
- 중국 랴오닝(遼寧)성의 한 봉사단에 참여해 수해복구를 도왔다는 선양(瀋陽)시의 한 소식통은 RFA에 “조선족 봉사단원들이 강 건너 북조선(북한)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고 황량한 것을 보면서 김정은을 노골적으로 비난했다”고 전함.

2016. 10. 18.

■ **中 “北미사일발사,안보리결의 위배…유관국, 정세긴장행위 말라”(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지난주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유관 당사국들이 “정세를 긴장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함.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최근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유엔 안보리가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중국의 입장이 뭐냐는 연합뉴스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언급함.
- 화 대변인은 우선 “북한이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미사일 발사 활동을 하는 데 대해 (기존) 안보리 결의에는 명확한 (금지) 규정이 있다”고 밝힘.

■ 정중욱, 북한을 전략적 부담으로 보는 중국내 시각 많아져(연합뉴스)

-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 정중욱 민간부위원장은 18일 “중국의 여론주도층에서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보는 시각이 다수이지만, 전략적 부담으로 보는 시각도 많아지고 있다”고 밝힘.
- 정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준위 외교안보분과 공개세미나 개최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히 그런 현상은 (중국) 고위층에도 점차 확산하고 있으며, 앞으로 북한의 핵 개발 속도가 빨라질수록 그런 경향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말함.
- 정 부위원장은 “당과 정부가 암시장을 어느 정도 단속은 하지만, 없앨 수는 없다”며 “당과 시장의 공존이 장기화하는 경우 승자는 시장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중국의 개혁, 개방 역사에서 잘 알고 있다”고 덧붙임.

■ 中 연변 방사능오염 수치조사·北핵실험 영향 여부 관심(연합뉴스)

- 중국이 북한의 1월과 9월 핵실험 장소와 가까운 지린(吉林)성 연변조선족자치주에 대한 천연 방사성 물질 오염도 검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짐.
- 18일 현지 매체인 연변일보에 따르면 연변자치주는 중국 환경보호부의 계획에 따라 국가 방사능안전센터, 성(省) 환경보호청 방사능감독소와 함께 연변 일대의 천연 방사선 환경 분석을 실시하고 있음.
- 이번 검사는 특히 천연 방사성 물질 오염도에 대한 조사이긴 하지만 북한 핵실험 이후에 이뤄지는 조사라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됨.

2016. 10. 20.

■ 중국, 北탄도미사일 발사에 “당사국 긴장 조성 삼가야”(연합뉴스)

- 중국은 20일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 북한의 이날 중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관 당사국이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고 밝힘.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 기자의 질문에 “관련 보도는 들었고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발사하는 활동을 진행한 데 대해 우리는 예전에 말했듯이 안보리 결의는 명확한 규정이다”고 밝힘.
- 화춘잉 대변인은 “현재 상황에서 관련 당사국은 자제를 유지하고 상호 자극과 지역 정세 긴장을 초래하는 일을 삼가야 한다”면서 북한을 지목해 비난하지는 않았음.

다. 북·일 관계

2016. 10. 16.

■ **北미사일 발사 실패에 日방위상 “일본 안보에 즉각 영향 없다”(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 15일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실패한 것에 관해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일본 방위상은 “즉시 우리나라(일본)의 안전보장에 뭔가 영향이 있는 사태는 아니다”고 반응함.
- 1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나다 방위상은 이날 오전 민영방송 후지TV에 출연해 “일본에 영향을 미칠만한 비행 물체가 날아온 것은 아니다. 확실히 정보를 수집하겠다”며 이같이 밝힘.
- 이나다 방위상은 “정보의 내용은 기밀 관계로 코멘트를 자제하겠다”고 말함.

2016. 10. 17.

■ **日, 北미사일 대비 2조~3조원대 방어장비 조기 도입(연합뉴스)**

- 일본 방위성이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라 2천억~3천억엔(약 2조2천억~3조3천억원)대의 미사일방어(MD) 예산을 올 3차 추경예산에서 요구할 방침이라고 산케이신문이 17일 전함.
- 당초 일본 방위성은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비용을 편성해 놓았으나, 북한이 올들어만 22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북한의 위협이 현실화함에 따라 MD 장비 도입을 앞당기려는 것임.
- 방위성이 3차 추경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은 항공자위대의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 개량형인 ‘PAC3 MSE’ 구입 비용이 대표적임.

2016. 10. 18.

■ **日 관방,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 부과 위해 관계국과 연대(연합뉴스)**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언론 성명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북한에 “더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계국과 계속해서 연대할 것”이라고 18일 밝힘.
- 스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언론 성명이 “북한의 거듭된 발사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안보리의 일치된 자세를 보여줬다”며 이같이 말함.
- 스가 장관은 “우리나라(일본)로선 계속해서 미국, 한국과 연대해 안보리의 추가 제재를 포함한 새로운 결의 채택을 위해 관계국과 긴밀히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임.

라. 북·러 관계

2016. 10. 15.

■ 러 언론, 평양 주재 중국 외교관 줄고 러시아 외교관 늘어(연합뉴스)

- 중국이 북한 주재 대사관 직원 수를 줄인 반면 러시아는 오히려 늘렸다고 러시아 극동 지역 언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함.
- 극동 연해주 지역 뉴스통신인 '데이타루'는 16일(현지시간) 북한 관련 전문기관 자료를 인용해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 직원 수가 지난 2013년 11명에서 지난해 11월 기준 17명으로 늘어났다고 전함.
- 통신에 따르면 북한에는 모두 24개국 공관이 있으며 러시아의 뒤를 이어 인도네시아가 9명, 독일·몽골·폴란드가 각각 8명의 외교관을 현지에 두고 있다고 소개함.

2016. 10. 16.

■ 러 국경수비대, 불법조업 北어선에 총격...1명 사망·8명 부상(연합뉴스)

- 동해 상의 러시아 해역에서 15일(현지시간) 러시아 국경수비대가 북한 어선을 검문하던 도중 양측 간에 충돌이 발생, 북한 어부 1명이 총에 맞아 숨지고 8명이 다침.
- 국경수비대가 소속된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은 이날 보도문에서 “북한 선원들이 어선에 승선한 수비대원들의 검문에 공격적으로 반응해 자위 차원에서 사격을 가했다”고 밝힘.
- 지난달 28일에도 러시아 극동 연해주의 국경수비대가 러시아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던 북한 어선을 억류한 바 있다. 당시 수비대원들은 어선에서 얼음에 냉동된 킹크랩(대게)을 폐기 처분하고 선원들을 불법 조업과 불법 월경 혐의로 조사함.
- 하지만 이번처럼 선원들과 수비대원들 간에 무력 충돌이 벌어져 인명 피해가 난 것은 이례적임.

2016. 10. 17.

■ 러 당국, 불법 조업 北 선원 조사...단속관 1명 부상 추가 확인(연합뉴스)

- 러시아 수사당국이 동해 상의 자국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다 적발된 북한 어선과 선원들을 연해주로 이송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수사당국 관계자가 17일(현지시간) 밝힘.
-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 극동지부 관계자는 이날 “북한 선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나훗카항으로 예인된 북한

- 어선 ‘대양 10호’에 대한 검사와 함께 나훗카와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송된 선원들에 대해서도 목격자와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함.
- 북한 어선들이 러시아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국경수비대에 적발돼 조사를 받은 적은 자주 있으나 이번처럼 양측 간에 무력 충돌이 발생해 인명 피해가 난 것은 이례적임.

2016. 10. 21.

■ **러 전문가, 北 병진정책은 효과적…새 타협안 빨리 마련해야(연합뉴스)**

- 핵무기 개발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북한의 소위 ‘병진’ 정책이 예상보다 효과적이었으며, 따라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북한을 상대할 새 타협방안을 최대한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러시아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됨.
- 동아시아문제 전문가인 러시아 사회과학원의 그레고리 톨로랴 박사는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 기고를 통해 “당초 (대북) 제재를 통해 다룰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 수준 이상으로 북한의 핵문제가 진화했다”며 이런 의견을 냄.
- 톨로랴 박사는 북한의 1인당 국민총생산(GNP)이 1980년대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1천 달러를 넘었다고 지적한 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이 북한 GDP의 2~3%에 그쳤을 것이라고 추산함. 그는 이 정도 비용이 세상을 떠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 정치’에 들어갔던 것과 비교해 적었을 것이라고 추정함.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6. 10. 16.

■ **북한의 거듭된 러브콜에도 동남아 전통우방국 반응은 ‘싸늘’(연합뉴스)**

- 4, 5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로 고립무원의 처지가 된 북한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거듭 러브콜을 보내고 있음.
- 전통적 우방인 동남아 국가들을 공략함으로써 외교적 고립 상황을 타개하려는 의도이지만, 해당 국가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짐.
- 북한은 지난 7월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당시에도 리용호 북한 신임 외무상의 동남아 국가 순방을 추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음. 지난달에는 최고인민회의 대표단의 인도네시아 국회 방문을 추진했지만, 인도네시아 측의 거부로 무산됨.

2016. 10. 18.

■ **안보리, 北미사일 발사 규탄…중대한 추가조치 취할 것(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7일(현지시간) 북한의 지난주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함.
- 안보리 15개 이사국은 이날 오후 북한의 이번 도발을 비난하는 내용의 언론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함.
- 안보리는 별도의 회의를 열지 않고 이사국들에 성명안을 회람시키고 동의를 받은 후 성명을 발표함. 북한의 도발에 대한 안보리의 언론성명은 올해 들어 이번이 11번째임.

■ **우간다 외교차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전면 이행 준비중(연합뉴스)**

- 제임스 무구메 우간다 외교부 사무차관은 18일 “우간다 정부는 북한과의 군사·안보 협력 관계에 있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를 전면적으로 이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힘.
- 무구메 차관은 이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안된다는 것은 우리의 일관된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함.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5월 국빈 방문 당시 북한과의 안보·군사·경찰 분야 교류를 중단한다고 밝혔던 우간다 정부가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임.
- 무구메 차관은 전날 진행된 ‘제1차 한-우간다 고위급 정책협의회’ 참석차 한국을 방문함. 이번 정책협의회는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당시 체결된 ‘양국 외교부간 협력 MOU’의 후속 조치로 열린 첫 회의임.

■ **北선박 탄자니아 국적 취득, 현지 등록체계 허점 때문(연합뉴스)**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채택 이후 북한 선박이 결의를 어기고 대거 탄자니아 국적을 취득한 것은 탄자니아 선박등록 체계의 허점 때문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함.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8일 탄자니아 일간지 ‘더 시티즌’(The Citizen)을 인용해 “외국 선박에 탄자니아 선적을 부여하는 기관과 탄자니아 중앙 정부 간의 전산처리 등 등록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설명함.
-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지난 3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270호는 ‘편의치적’(便宜置籍선박을 다른 나라에 등록하는 것) 제도에 따라 제3국이 북한 선박에 국적을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돼 있음.

2016. 10. 19.

■ **올해 안보리 언론성명 최다 규탄국은 북한…11건(연합뉴스)**

- 올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언론성명을 통해 가장 많이 규탄한 국가는 북한이라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19일 보도함.
- 안보리가 올해 1월부터 지난 18일 현재까지 채택한 언론성명은 모두 92개로, 이 가운데 북한을 겨냥한 것은 총 11건(12%)에 달함.
- 뉴욕의 민간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스티븐 노퍼 부회장은 VOA에 “유엔 안보리의 성명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추후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함.

■ 멕시코 당국, 北선박 무두봉호 해체작업 들어가(연합뉴스)

- 멕시코 정부에 몰수된 북한 선박 무두봉호에 대한 해체작업이 시작됐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19일 현지 언론을 인용해 보도함.
- 멕시코의 민영방송 ‘노티시에로스 텔레비자’는 멕시코 동부 해안 투스판 항구 관계자의 말이라면서 무두봉호가 조만간 고철로 해체될 예정이라고 보도함.
- 현재 무두봉호는 기존에 있던 항구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진 상태이며, 멕시코는 고철로 판매해 억류로 발생한 정박 비용을 메울 것으로 알려짐.

2016. 10. 20.

■ 탄자니아, 북한 선박의 탄자니아 국적 취득 부인(연합뉴스)

- 탄자니아는 19일(현지시간) 북한 선박에 탄자니아 국기를 달고 운항할 수 있도록 해 북한을 제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어겼다는 의혹을 부인함.
- 압둘라흐 후세인 탄자니아 잔지바르해사국(ZMA) 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런 혐의는 무효”라면서 “탄자니아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함.
- 허점이 드러나자 후세인 국장은 앞으로 외국 선박을 (탄자니아 선적으로) 등록하는 업무는 해사국에서 직접 할 것이며 북한 선박의 등록 취소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힘.

2016. 10. 21.

■ 반기문 “北, 작년 7월부터 평양주재 외교관 유엔직원 감시”(연합뉴스)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1일 제71차 유엔 총회에서 “북한이 지난해 7월부터 평양주재 외교관과 유엔 직원을 광범위하게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함.
- 반 총장은 “북한에서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정보에 대한 접근이 계속 극도로

제한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VOA는 밝힘.

- 반 총장은 국제사회에 “북한에서 활동하는 유엔 기구들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을 통해 대북제재가 인도적 지원 활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시급히 취해달라”고 촉구함.

■ 北 “유엔, 인류에게 희망 아닌 실망 주고 있다” 억지(연합뉴스)

- 북한이 제71차 유엔 총회 제6위원회(유엔의 법제·사법위원회 격) 회의에서 “유엔의 대처방식은 인류에게 희망이 아니라 실망을 주고 있다”고 비난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조선(북한)대표가 지난 14일 제71차 유엔총회 제6위원회 안건 ‘유엔헌장 및 기구 역할 강화문제’ 토의 때 연설하였다”면서 21일 이같이 보도함.
- 북한 대표는 연설에서 “지금 이 시각에도 특정한 국가들에 의해 국제관계의 기초인 유엔헌장이 완전히 무시되는 비정상적인 현상들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국제평화와 안전은 엄중히 위협당하고 있다”고 주장함.

바. 군사 및 핵·미사일

2016. 10. 16.

■ 北, 한미훈련 종료일에 무수단미사일 발사·공중폭발로 실패(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 15일 무수단 중거리미사일 1발을 발사했으나 실패함. 무수단 중거리미사일은 발사 직후 폭발한 것으로 알려짐.
- 합동참모본부는 16일 “북한이 15일 오후 12시 33분께 평안북도 구성시 방현 비행장 인근에서 무수단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 1발을 발사했지만 발사 직후 실패했다”고 밝힘.
- 합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행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북한의 불법적인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우리 군은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밝힘.

2016. 10. 17.

■ 日언론 “北무수단, 기술적 불안정성…추가 시험 가능성”(연합뉴스)

- 일본 언론은 북한이 15일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가 실패한 것은 기술적 불안정성을 드러낸 것이며, 추가 발사 시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함.

- 요미우리(讀賣)신문은 발사가 실패로 끝났다는 한국 합동참모본부의 발표를 전하고서 “여전히 연료 계통 등에 과제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개량해서 추가 실험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17일 보도함.
- 이 신문은 북한이 그간 무수단 미사일 발사를 반복했던 원산이 아니라 중국에 인접한 평안북도 구성시에서 발사해 “한곳이 아니라 여러 장소에서 발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기습능력’을 과시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함.

■ 軍, 北 내륙서 무수단 발사한 이유 있을 것…평가중(연합뉴스)

- 우리 군은 북한이 15일 무수단미사일을 과거와 달리 내륙지역에서 발사한 것과 관련, 17일 “여러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가능성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고 밝힘.
-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북쪽 내륙지역인) 방현 비행장에서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함.
- 합참 관계자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선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말함.

2016. 10. 18.

■ 美전문가 “北, 지금 속도대로라면 내년 무수단 전력화도 가능”(연합뉴스)

- 북한이 다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무수단(북한명 ‘화성-10’) 발사시험에 실패했지만, 북한의 “공격적인” 미사일 개발 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지금 속도대로 개발이 진행된다면 내년에 무수단 미사일의 전력화도 가능할 것이라는 미국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음.
- 미국 항공우주연구기관 에어로스페이스의 존 실링 연구원은 17일(이하 현지시간) 북한 전문매체 ‘38노스’ 기고를 통해 “북한은 분명히 무수단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약 7개월간의 훈련과 연습을 거친다면 (무수단 미사일이) 실질적인 초도작 전능력을 갖출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 실링 연구원은 지난 6월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시험발사했을 때 “부분적 성공”이라고 평가했고, 그때까지의 시험발사 결과로 미뤄볼 때 북한이 2020년대 초반까지 무수단은 물론 ‘KN-08’ 같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실전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함.

■ 38노스, 北 로켓엔진시험장에서 꾸준한 활동(연합뉴스)

-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 로켓발사장, 특히 엔진시험장에서 추가 엔진시험을 위한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는 꾸준한 활동이 나타나고 있다고 미국의

-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17일(이하 현지시간) 밝혔.
- 38노스는 지난 1일과 8일에 촬영된 상업용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로켓엔진 시험장 부근 두 곳에서 계측장비로 보이는 물체가 새로 나타났다며 “엔진 시험 과정을 기록할 카메라나 다른 계측 장비”일 수 있다고 추정함.
 - 38노스는 로켓발사대와 인접한 로켓연료·산화제 보관용 병커 주변에서 소형 차량으로 보이는 세 개의 물체가 새로 포착됐지만, 로켓발사대 주변에서는 이렇다 할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로켓발사장에서의 활동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고 덧붙였다.

■ 北, 2020년 말까지 핵무기 최대 79개 제조 가능(연합뉴스)

- 북한의 핵물질 보유량을 고려할 때 2020년 말까지 최대 79개의 핵무기 제조가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왔음.
-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18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외교안보분과 공개세미나에 앞서 미리 배포된 '북한 비핵화 관철을 위한 추진전략'이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함.
- 이 본부장은 "(북한 정권은 핵-경제) 병진 노선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고, 단기적 변화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단, 지도자와 정책주체 등 행위자 차원 또는 환경·정치기회 구조 차원 혹은 양 차원 모두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긴다면 전략노선의 변화도 가능하다. 제재 및 압박과 함께 전략적 설득과 유인의 병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함.

2016. 10. 19.

■ 국정원 “北, 올해 핵·미사일에 2억불…사이버공격 급증”(연합뉴스)

- 북한은 올해 핵과 미사일 등 전략적 도발에 2억 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또 올해 사이버공격이 지난 3년간 평균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국가정보원은 이날 이병호 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내곡동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새누리당 이완영,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간사가 기자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함.
- 이 원장은 “북한은 올해 들어 핵, 미사일 등 전략적 도발에 2억달러, 여명거리 건설에 1억6천만달러, 제7차 노동당대회 준비에 1억달러 등을 우선 투입했다”면서 “대북 제재의 무용론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함.

2016. 10. 20.

■ **한미 '북핵 확장억제' 합의에 北 '괘 타격' 무수단 발사로 응수(연합뉴스)**

- 북한이 20일 오전 7시 무수단미사일을 발사한 시각은 미국 워싱턴D.C에서 한국과 미국의 외교·국방 수장이 만난 직후였음.
- 한미가 외교·국방장관(2+2) 회의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어떤 도발도 격퇴될 것이라고 경고한 데 대해 북한이 괘의 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무수단미사일 도발로 응수한 모양새임.
- 북한은 지난 4~6월에도 잇단 실패에도 무수단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했지만, 최소 열흘 이상의 간격은 뒀음.

2016. 10. 21.

■ **獨전문가 “北, 무수단 최소 5차례 더 시험발사할 것”(연합뉴스)**

- 독일의 미사일 전문가가 북한이 앞으로 무수단 미사일을 5차례 이상 더 시험 발사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1일 보도함.
- 독일 첨단기술 분석전문업체인 ST 애널리틱스(ST Analytics)의 마커스 실러 박사는 RFA에 “북한이 지난 15일에 이어 5일 만에 다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엔진 개량을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관측을 내놨음.
- 실러 박사는 “(지난 2013년 실전 배치된) 러시아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불라바’의 경우 15차례 이상 시험을 했다”며 “6~7차례는 완전히 실패했고 그 후에도 10여 차례 시험을 거쳐 실전배치가 가능한 수준이 됐다”고 강조함.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정세

■ 개요

| 분류 | 일자 | 한국 | 미국 |
|-------|-------|--|--|
| 한미 관계 | 10.15 | | 美 해병대사령관 방한...유사시 한국방어에 모든 수단 동원(연합뉴스) |
| | 10.16 | 한미동맹, 北 핵위협에 '확장억제 실효조치'로 맞선다(연합뉴스) | |
| | 10.17 | 北무수단 발사 5일만에 한미 20일 국방회담...확장억제 주목(연합뉴스) | |
| | | 윤병세, 한미 '2+2'회의서 확장억제 구체협력 방안 모색(연합뉴스) | |
| | 10.19 | 한미 외교·국방 연쇄회의 시작...대북제재·확장억제 논의(연합뉴스) | |
| | | | |
| | 10.20 | 윤병세, 美 전략무기 한국 상시배치 SCM서 논의(연합뉴스) | |
| | | | |
| | 10.21 | 한미, 北 어떤 공격도 격퇴...핵도발시 압도적 대응한다(연합뉴스) | |
| | | 고위당국자, 美 '가용한 모든 옵션 배제 않는다' 대북메시지 주목(연합뉴스) | |
| | | 한미일, 4년만에 WMD적재 北선박 차단훈련(연합뉴스) | |
| | 10.21 | 한민구, 美 최첨단무기 '레이전' 개발현장 방문(연합뉴스) | |
| | | 한미, 전략자산 배치 두고 엇박자...北핵위협 인식 차이(연합뉴스) | |
| | | 10.21 | 국방부 "한미, 美전략자산 상시 순환배치 필요성 공감"(연합뉴스) |

| 분류 | 일자 | 한국 | 중국 |
|-------|-------|---------------------------------------|---|
| 한중 관계 | 10.18 | | 中 “한중, 불법조업 공동단속 적절한 시기에 재개”(연합뉴스) |
| | 10.19 | | 추귀홍, 한미관계 요소가 中에 영향주면 조치 취하는 게 정상(연합뉴스) |
| | | ‘해경선 갈등’ 봉합하나…‘사드대처’ 韓中 확전자제(연합뉴스) | |
| 분류 | 일자 | 한국 | 일본 |
| 한일 관계 | 10.18 | 韓상공서 한미일 편대비행 한국 난색에 불발…우리軍은 부인(연합뉴스) | |
| | 10.20 | 조운선 장관, 한일 콘텐츠 기업간 협업 적극 지원(연합뉴스) | |
| | 10.21 | 한미일, 27일 도료서 ‘북핵공조’ 외교차관협의회(연합뉴스) | |
| 분류 | 일자 | 한국 | 러시아 |
| 한러 관계 | | | |

2. 주변국정세

■ 개요

| 분류 | 일자 | 미국 | 중국 |
|-------|-------|---|--|
| 미중 관계 | 10.17 | | 美 핵항모 레이건호 한반도 출현에 中, 긴장고조시키지 마라(연합뉴스) |
| | 10.18 | 폴슨 전 美재무 “北핵위협, 가장 시급한 문제...미·중 협력해야”(연합뉴스) | |
| 분류 | 일자 | 미국 | 일본 |
| 미일 관계 | | | |
| 분류 | 일자 | 미국 | 러시아 |
| 미러 관계 | 10.16 | 미·러 시리아 휴전협상 돌파구 마련 실패...접촉 연장(연합뉴스) | 러시아 유엔대사, 美·러 관계 1973년 이후 최악(연합뉴스) |
| | 10.17 | 미·영, 알레포사태 러시아 추가제재 검토...푸틴 “역효과낼것”(연합뉴스) | |
| | 10.19 | 고르비·부시, 美·러 관계 개선에 모든 노력 기울일 것(연합뉴스) | |
| | | | |
| 분류 | 일자 | 중국 | 일본 |
| 중일 관계 | 10.17 | 中, 日야메 야스쿠니신사 공물에 ‘반대’...침략역사 반성하라(연합뉴스) | |
| 분류 | 일자 | 중국 | 러시아 |
| 중러 관계 | 10.16 | 중·러 정상, 한반도 문제 논의...사드·대북 제재 조율(연합뉴스) | |
| | 10.18 | 러·中, 연합 미사일방어 훈련 정기 실시 합의...美사드 대응(연합뉴스) | |
| 분류 | 일자 | 일본 | 러시아 |
| 일러 관계 | 10.17 | 닛케이 “일본 정부, 북방영토 러일 공동 통치안 검토”(연합뉴스) | |

■ 주간 동향

1. 한반도정세

가. 한·미 관계

2016. 10. 15.

■ 美 해병대사령관 방한·유사시 한국방어에 모든 수단 동원(연합뉴스)

- 로버트 벨러 미 해병대사령관(대장)이 15일 유사시 미 해병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한국을 방어할 것이라며 미국의 방위공약을 재확인함.
- 해병대사령부는 “벨러 미 해병대사령관이 오늘 우리 해병대사령부를 방문했다”며 “벨러 사령관은 이상훈 해병대사령관과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비한 한미 해병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힘.
- 이 자리에서 벨러 사령관은 “미국과 한국의 해병대는 형제”라며 각별한 우의를 강조하고 “유사시 모든 것을 다해 도울 것이고 항공자산은 물론, 함정까지 모두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함.

2016. 10. 16.

■ 한미동맹, 北 핵위협에 ‘확장억제 실효조치’로 맞선다(연합뉴스)

- 한미 양국이 다음 주 개최하는 외교·국방장관(2+2) 회의와 안보협의회(SCM)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가 초점이 될 것으로 보임.
- 올해 들어 2차례나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한 한미동맹 차원의 군사적 대응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한미동맹을 보다 공고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음.
- 이번 외교·국방장관 회의와 SCM에서 한미 양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 능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짐.

2016. 10. 17.

■ 北무수단 발사 5일만에 한미 20일 국방회담…‘확장억제’ 주목(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 15일 무수단 중거리미사일을 발사한 지 5일 만에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미국 워싱턴DC에서 머리를 맞대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할 방안을 논의함.
- 이번 회담에서는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 정부 관계자는 17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오는 20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48차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하기 위해 내일 출국한다”고 밝힘.

■ 윤병세, 한미 ‘2+2’회의서 확장억제 구체협력 방안 모색(연합뉴스)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오는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되는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에서 “확장억제 관련 구체적인 협력 방향을 포함해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17일 밝힘.
- 윤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미셸 플라노이 전 미국 국방차관을 비롯한 ‘신(新)미국안보센터’(CNAS) 차세대 안보전문가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핵사용 위협은 동북아지역을 넘어 미국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균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제재·압박 기조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함.
- 윤 장관은 ‘국제사회 대(對) 북한’의 구도가 점점 확고해지고 있다면서 “차기 미 행정부 출범 등 과도기적 상황으로 인해 북한이 오만하지 않도록 앞으로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2016. 10. 19.

■ 한미 외교·국방 연쇄회의 시작…대북제재·확장억제 논의(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의 외교·국방장관들이 19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연쇄회의를 열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억제할 외교적·군사적 대응방안을 협의함.
- 미 국무부에서는 이날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 존 케리 미 국무장관,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의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가 열림.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번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와 SCM은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하고 있고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는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의의가 크다”고 강조함.

■ 카터 美국방, 이태지역에 첨단무기와 정예 인력 지속 투입(연합뉴스)

-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18일(현지시간)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2단계 과정에 따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최고의 정예 미군과 첨단무기를 지속해서 투입하고 있다”고 밝힘.
- 카터 장관은 이날 미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 외교·안보구상인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함.

- 카터 장관은 이어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이 2014년 10월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한미동맹의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면서 “아울러 올해 7월에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위협 대응 조치의 하나로 한국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포대를 가능한 빠른 시기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함.

2016. 10. 20.

■ **윤병세, 美 전략무기 한국 상시배치 SCM서 논의(연합뉴스)**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전략무기를 한국에 상시 배치하는 문제가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SCM)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됨.
- 윤 장관은 19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국무부에서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마치고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과 함께 한 공동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미국) 전략 자산의 상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개최되는 한미 국방장관 회의에서 협의가 예상된다”며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인 말을 삼가겠다”고 답함.
-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이번 SCM 의제에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배치 문제가 포함된다는 점을 밝힌 것임. 한미 양국 국방부는 SCM을 앞두고 미국의 장거리폭격기인 B-1B '랜서'나 이지스구축함 등을 한국에 상시 배치하는 방안을 실무선에서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짐.

■ **미국, 기갑전투여단 한국 순환배치...3천500명 규모(연합뉴스)**

-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시험 등으로 한반도에서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이 3천500명 규모의 1개 기갑 전투여단을 한국에 순환 배치하기 시작함.
- 미 육군은 텍사스주 포트 라일리의 제1 보병사단 예하 제1 기갑 전투여단 전투팀을 9개월간 한국에 순환 배치하기 시작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발표함.
- 특히 이번에 한국에 배치되는 부대는 탱크, 장갑차, 헬기 등을 갖춘 혼성부대로 기동성이 뛰어나고 막강한 화력을 갖춘 대표적인 부대임.

■ **한미, 北 어떤 공격도 격퇴...핵도발시 압도적 대응한다(연합뉴스)**

- 한미 양국이 19일(미국 현지시간) 핵·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는 북한의 어떤 도발도 격퇴할 것이며 북한이 핵 도발에 나설 경우 압도적인 응징에 직면할 것이라는 고강도 경고메시지를 보냄.
- 한미 양국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에서 개최한 외교·국방장관(2+2) 회의 직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미국 또는 동맹국에 대한 그 어떤 공격도 격퇴될 것이며 그 어떤 핵무기 사용의 경우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이번 SCM에서는 미국의 전략무기를 한국에 상시 배치하는 방안과 함께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짐.

■ 고위당국자, 美 ‘가용한 모든 옵션 배제않는다’ 대북메시지 주목(연합뉴스)

- 정부 고위 당국자는 19일(현지시간) 미국 일각에서 나오는 대북 ‘선제타격론’과 관련해 “최근 여러 번 미 행정부에 이에 대한 질문도 있고 해서 행정부도 일반적 차원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함.
-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 참석차 방미중인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최근 들어 미국 측에서 나오는 ‘가용한 모든 옵션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메시지인데 이를 눈여겨 보고 있다”고 강조함.
- 그는 대북 압박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측면의 압력이 하나의 큰 축이라면, 또 하나의 축은 군사적 역제가 뒷받침해줘야 한다는 점”이라며 “두 축이 싱크로나이즈 돼 움직여야 한다”고 말함.

■ 한미일, 4년만에 WMD적재 北선박 차단훈련(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 일본이 22~23일 제주 동방 공해 상에서 수색구조 훈련과 해양차단작전 훈련을 한다고 우리 해군이 20일 밝힘.
- 한미일이 대량파괴무기(WMD) 적재 의심 선박을 식별·검색하는 해양차단작전훈련을 하는 것은 2012년 9월 이후 4년여만으로, 북한이 주요 타깃임.
- 해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해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향상하고 3국 간 우호협력을 증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 한민구, 美 최첨단무기 ‘레이건’ 개발현장 방문(연합뉴스)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9일(미국 현지시간) 미 해군의 무기체계를 만드는 수상전센터(NSWC)를 찾아 최첨단 해상무기인 ‘레이건’ 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한미 양국 군의 기술협력 방안을 논의함.
-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한 장관이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미 해군 수상전센터 달그렌 지부를 찾아 무기체계 개발 현장을 참관했다”고 밝힘. 한국 국방부 장관의 수상전센터 방문은 이번이 처음임.

- 국방부 관계자는 “한 장관의 수상전센터 방문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북한의 해상 전투능력 발전에 대응하지는 취지”라며 “앞으로 한미 해군이 수상전센터에서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

2016. 10. 21.

■ **한미, 전략자산 배치 두고 엇박자··北핵위협 인식 차이(연합뉴스)**

- 한미 양국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한 제48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엇박자를 보임.
- 양국이 수사(修辭) 차원에서는 북한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지만,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엄중함을 받아들이는 정도에서는 아직도 온도차가 있다는 게 확인됨.
- 한민구 장관은 “이번에 출범하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의 틀 속에서 추가적인 여러 군사적 옵션들을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 **국방부 “한미, 美전략자산 상시 순환배치 필요성 공감”(연합뉴스)**

- 국방부는 21일 “한미 양국은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배치를 포함해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밝힘.
- 국방부는 이날 미 전략자산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 관련, 일부 언론에 ‘미국 측이 상시 순환배치를 사실상 거절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이런 입장을 기자들에게 공지함.
- 국방부는 이어 “한미는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함.

나. 한·중 관계

2016. 10. 18.

■ **中 “한중, 불법조업 공동단속 적절한 시기에 재개”(연합뉴스)**

- 중국 정부가 18일 불법조업에 대한 한중간 공동단속 활동이 자국의 요청으로 무산된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재개될 것”이라고 밝힘.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기적으로 진행된 한중간 어업지도선 교차승선 활동이 올해 중국 측의 요청으로 무산된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연합뉴스의 요청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최근 한중 간에 일부 어업분쟁 사건이 발생했다”고 운을 뗐.
- 화 대변인은 “현재 양측은 사건 해결에 집중하기 위해 소통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면서

“양측은 적절한 시기에 한중 어업지도선 상호교차 승선회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힘.

2016. 10. 19.

■ **추귀홍, 한미관계 요소가 중에 영향주면 조치 취하는 게 정상(연합뉴스)**

- 추귀홍(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는 19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를 둘러싼 한중 갈등이 양국의 정치·군사 교류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경제교류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 추 대사는 이날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초청 강연회에서 “한중간 특정 현안을 언급하지는 않겠다”고 전제한 뒤 “한미관계의 어떤 요소가 중국에 영향을 주면 중국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함.
- 추 대사는 이어 “중한 간 우호협력이라는 큰 추세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고 한가지 문제 때문에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싸우는 과정에서 불편을 느낄 수 있지만 좀 멀리 내다보면 중한관계의 전망에 대해 충분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말함.

■ **‘해경선 갈등’ 봉합하나…‘사드대치’ 韓中 확전자제(연합뉴스)**

-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에 이어 또 하나의 한중 외교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까지 제기됐던 해경정 침몰 사건이 19일 한중 외교 차관보급 협의로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가 나옴.
-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는 이날 서울에서 열린 한중 외교부 차관보급 협의에서 자국 어선의 충돌에 의한 한국해경정 침몰 사건과 관련 “중국 법과 규정에 따라 해당 어선을 조사 중이며,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힘.
- 이와 관련, 양측은 서해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 등 각종 협의 채널을 통해 이런 문제들을 긴밀히 협의키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힘.

다. 한·일 관계

2016. 10. 18.

■ **韓상공서 한미일 편대비행 한국 난색에 불발…우리군은 부인(연합뉴스)**

-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한국 상공에서 한국·미국·일본 3국 부대가 편대 비행하는 방안에 대해 미국이 의향을 물었으나 한국이 부정적으로 반응해 성사되지 않았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8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5차 핵실험 나흘 뒤인 지난달 13일 북한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미국 전략폭격기 B-1B를 한국에 파견할 때 한국 상공에서 한미일이 편대비행 하는 방안을 미국 측이 물밑에서 타진했으나 한국은 국민감정을 고려해 난색을 보였고 실현 되지 않았다고 한미관계 소식통이 밝힘.
- 미국이 편대비행을 타진한 배경에는 북한에 한미일 3국의 결속을 보여주려는 생각이 있었으나 한국 측은 “국민 감정상 자위대 항공기가 한국 상공을 비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아사히는 전함.

2016. 10. 20.

■ **조윤선 장관, 한·일 콘텐츠 기업간 협업 적극 지원(연합뉴스)**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0일 일본 도쿄 코리아센터에서 현지 콘텐츠업계 대표들과 한·일 문화콘텐츠 시장 확대 및 한류 상생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음.
- 문체부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KBS 재팬, CJ E&M 재팬 등 한국 방송사의 일본 현지법인과 쇼치쿠브로드캐스팅, 디지털어드벤처 등 방송사업자와 TC엔터테인먼트, NBC유니버설재팬, 콘텐츠세븐 등 한국 콘텐츠 수입·유통사 관계자들이 참석함.
- 이 자리에서는 한류 상생을 위해 한·일 공동 제작 환경을 개선하고, 한류 팬의 SNS를 통해 신속하게 한류 정보를 전달하는 방안 등이 논의됨.

2016. 10. 21.

■ **한미일, 27일 도쿄서 ‘북핵공조’ 외교차관협의회(연합뉴스)**

- 외교부는 오는 27일 일본 도쿄에서 한미일 3국 외교차관협의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힘.
- 미국 워싱턴D.C에서 19일~20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와 국방장관간 제48차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 이어 이번에는 한미일 외교차관들이 도쿄에서 한자리에 모여 대북공조를 다짐.
- 우리측에서는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이, 미측에서는 토니 블링컨 국무부 부장관이, 일본 측에서는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성 사무차관이 각각 수석대표 참석함.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2. 주변국정세

가. 미·중 관계

2016. 10. 17.

■ 美 핵항모 레이건호 한반도 출현에 中, 긴장고조시키지 마라(연합뉴스)

- 중국 국방부가 최근 실시된 한미 해상 연합훈련에 대해 “유관 당사국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지역 정세의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힘.
- 중국 국방부는 17일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계정을 통해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참가해 서해에서 벌인 한미 연합훈련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힘.
- 중국 국방부는 레이건호가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 주변 해역에 온 것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을 묻는 언론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 같은 논평을 내놓았음.

2016. 10. 18.

■ 폴슨 전 美재무 “北핵위협, 가장 시급한 문제…미·중 협력해야”(연합뉴스)

- 헨리 폴슨 전 미국 재무장관이 북한의 핵무기 위협 증가가 아시아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라며 미국과 중국 간 협력을 촉구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8일 보도함.
- 폴슨 전 장관은 17일 홍콩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중국이 전 세계에서 이해관계가 증가함에 따라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외교정책을 펴고 있어 아시아에서 군비 경쟁이 심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SCMP가 전함.
- 폴슨 전 장관은 “북한 핵 문제가 큰 위협이기 때문에 기회도 있다”며 “(미·중) 양국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풀기 위해 협력할 기회가 있다”고 강조함.

나. 미·일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다. 미·러 관계

2016. 10. 16.

■ 미·러 시리아 휴전협상 돌파구 마련 실패…접촉 연장(연합뉴스)

- 시리아 반군 지역이 장악한 알레포가 폐허 직전의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등이 15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만나 휴전 전제 조건 등을 논의함.
- 양측은 알레포 비행금지 구역 설정과 반군 내 테러조직 제거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타스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전함.
- 라브로프 장관은 “협상 당사자들 간에 몇몇 흥미로운 구상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며 “우리는 가까운 시일 내의 추가 접촉에 합의했으며 사태해결을 위한 모종의 합의를 기대한다”고 말함.

■ 러시아 유엔대사, 美·러 관계 1973년 이후 최악(연합뉴스)

- 유엔 주재 러시아대사가 15일(현지시간) 현재의 미국과 러시아 간 긴장 관계를 1973년 이래 최악의 상태로 진단함.
- 1973년은 이집트,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제4차 중동전쟁(욘 키푸르 전쟁)이 발생한 해임. 중동 산유국들이 석유수출을 중단하면서 1차 오일쇼크로 이어짐.
- 비탈리 추르킨 러시아대사는 14일(현지시간) 유엔 주재 러시아대표부에서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미·러 간의) 전반적인 상황이 현재 상당히 안 좋다. 내가 보기엔 1973년 이후 최악”이라고 말함.

2016. 10. 17.

■ 마·영, 알레포사태 러시아 추가제재 검토…푸틴 “역효과낼것”(연합뉴스)

- 미국과 영국이 러시아와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부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한 알레포 폭격 중단을 압박함.
- 16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시리아 사태 해법을 위해 런던을 찾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현재 상황이 “최대의 인도주의적 재앙”이라며 “러시아는 이 전쟁이 정치적 해결 없이 끝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함.
- 푸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방의 제재가 “역효과를 낼 뿐”이라며 정치적 해결을 위해서는 타협이 필요하지만, 미국이 그럴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비난함.

2016. 10. 19.

■ 고르비·부시, 美·러 관계 개선에 모든 노력 기울일 것(연합뉴스)

- 시리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한 가운데

- 데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前) 소련 대통령과 조지 H.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양국 관계 개선에 발 벗고 나서기로 함.
-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자국 인테르팍스 통신에 “제임스 베이커 전 미 국무장관의 제안으로 어제 부시 전 대통령과 3자 전화 통화를 했다”면서 “세 사람은 현 국제 정세, 특히 미-러 관계가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는데 견해를 같이했다”고 전함.
 - 그러면서 미-러 양국이 최악의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퇴역한 정치인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는 자신의 제안에 부시가 동의했다고 소개함.

라. 중·일 관계

2016. 10. 17.

■ 中, 日아베 야스쿠니신사 공물에 ‘반대’…침략역사 반성하라(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17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靖國)신사에 공물을 보낸 것과 관련,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침략 역사를 반성하라”고 거듭 촉구함.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아베 총리의 공물 봉납에 대한 입장을 요구받자 “야스쿠니 신사는 침략전쟁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제2차대전 A급 전범들이 합사된 곳”이라며 “우리는 일본 정계 요인들의 잘못된 방식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힘.
- 화 대변인은 “우리는 일본이 침략의 역사를 깊이 반성하고 군국주의와의 경계를 분명히 긋기를 촉구한다”면서 실제 행동을 통해 아시아 이웃국가와 국제 사회의 신임을 얻으라고 요구함.

마. 중·러 관계

2016. 10. 16.

■ 중·러 정상, 한반도 문제 논의…사드·대북 제재 조율(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짐.
- 16일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지난 15일 인도 서부 고아주(州)에서 열린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 참석해 별도 양자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

를 논의했다고 보도함.

- 이 신문은 두 정상이 한반도 문제를 포함, 역내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2016. 10. 18.

■ **러·中, 연합 미사일방어 훈련 정기 실시 합의…美사드 대응(연합뉴스)**

-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한국 배치 등에 대응해 연합 미사일방어(MD)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 러시아 유력 일간 이즈베스티야는 18일 중국 외무부 구주 및 중앙아시아국 국장 등을 인용해 “지난 5월 모스크바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첫번째 양국 가상 MD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이 같은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전함.
- 지난 2011년 연합 해상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한 러·중 양국은 최근 사드 시스템의 한국 배치 등으로 군사협력 확대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MD 훈련도 정기적으로 벌이기로 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함.

바. 일·러 관계

2016. 10. 17.

■ **닛케이 “일본 정부, 북방영토 러일 공동 통치안 검토”(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러시아와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을 양국이 공동으로 통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복수의 러·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17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북방영토 가운데 하보마이(齒舞)군도와 시코탄(色丹)을 러시아가 일본에 반환하고 구나시리(國後)와 에토로후(擇捉)를 러시아와 일본이 공동으로 통치하는 방안을 축으로 영토 협상에 임할 방침임.
- 일본은 자국이 강한 시정 권한을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4개 섬 전역이나 하보마이, 시코탄, 구나시리 등 3개 섬을 공동 통치하는 방안도 함께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짐.

III 북한인권

■ 개요

| 분류 | 일자 | 내용 | |
|--------------|-------------|---|--|
| 북한인권 국제동향 | 10.17 | ‘북한 해외노동자 인권문제 유엔 인권결의안 첫 명기 추진(미국의소리) 통일 후 북한에 캄보디아식 전범재판소 설립해 심판(연합뉴스) | |
| | 10.19 | WP, 中동북지방 숨어사는 北여성 20% 온라인 성매매 내몰려(연합뉴스) | |
| | 10.20 | 北인권 현인그룹 회의, 다음주 뉴욕서 열려(연합뉴스) 한미 北인권 협의채널 설치...총체적 대북압박 나선다(연합뉴스) 러, 北노동자 해외송출 제한, 안보리 제재수단으로 적절치 않아(연합뉴스) 반 총장, 21일 유엔 총회에 북한인권보고서 제출(자유아시아방송) | |
| | 10.21 | 탈북단체, 대북전단 30만장 살포...미사일 발사 규탄(연합뉴스) 北인권실태 영화로 들여다본다...북한인권영화제 개막(연합뉴스) | |
| 북한인권 내부동향 | 10.19 | 北, 유엔서 “종업원 집단탈북은 유인 납치” 주장(연합뉴스) | |
| 북한인권 남한동향 | 10.17 | 정부, 탈북민 지역사회 역할 확대 방안 검토(연합뉴스) 이정훈 북한인권대사 첫 행보...체코서 北문제 공론화(연합뉴스) | |
| | 10.20 | 외교부, 윤병세 2007년 北인권결의 회의 3회 참석...쪽 찬성(연합뉴스) 홍용표, 전시남북자는 해결해야 할 인륜·천륜 문제(연합뉴스) 이정훈 대사 “北인권탄압, 테러같은 국제사회 공동문제”(연합뉴스) ‘6·25전쟁 납북자기념관’ 파주서 착공...내년 10월 개관(연합뉴스) | |
| | 탈북자 이산가족 | 10.16 | 1977년 납북된 일본인 마쓰모토 교코 평양 병원에 입원중(연합뉴스) |
| | 납북자 국군포로 | 10.17 | 고위층 포함 탈북 지속...北수해에 추가 탈북 가능성(연합뉴스) |
| 대북지원 | 10.15 | 北 수해로 설사병·급성영양실조 어린이 4배 증가(연합뉴스) | |
| | 10.17 | 北기아지수 2000년 40.4→올해 28.6 개선...여전히 심각 수준(연합뉴스) | |
| | 10.19 | WHO, 北 수해지역서 설사병·급성호흡기질환자 늘어(연합뉴스) 덴마크, 北 수해 복구에 6만달러 지원하기로(연합뉴스) | |

■ 주간 동향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6. 10. 17.

■ ‘북한 해외노동자 인권문제’ 유엔 인권결의안 첫 명기 추진(미국의소리)

- 한국 정부 관계자는 1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는 12월 유엔총회에 상정될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에 북한의 해외 노동자 인권 침해 문제를 명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관련국들과 조율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 한국 정부는 해외 송출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 문제를 미국, 일본과 함께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에 포함시키기 위해 관계국들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해외 북한 노동자들이 인권 침해를 겪고 있고 북한 당국이 이들이 번 돈의 대부분을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하고 있다며 북한 노동자들이 파견된 나라는 물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유럽연합(EU) 등을 통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전문가들은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이 강제력은 없지만 해외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가 명시될 경우 중국과 러시아, 중동 등 북한 노동자들을 받아들여 온 국가들의 행동에 제동을 거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봄.

■ 통일 후 북한에 캄보디아식 전범재판소 설립해 심판을(연합뉴스)

- “통일 후 독립된 (북한) 전범재판소를 세우게 된다면 캄보디아 재판소가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 당사국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옵션입니다.”
- 백강진(47·사법연수원 23기) 유엔 캄보디아 크메르루주 전범재판소(ECCC) 재판관은 17일 인터뷰에서 자신이 몸담은 ECCC가 향후 북한 지도부의 반인권 범죄를 단죄하는데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 백 재판관은 “유엔은 이미 북한 지도자의 반인권 범죄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거나 독립된 재판소를 설립하라고 했다”며 북한이 ICC 비가입국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ICC 직권 회부를하기 어려운 만큼 캄보디아와 같은 독립재판소 설립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망함.

2016. 10. 19.

■ **WP, 中동북지방 숨어사는 北여성 20% 온라인 성매매 내몰려(연합뉴스)**

- 탈북이나 인신매매, 결혼빙자 사기 등을 통해 중국 동북지역으로 이주했지만, 사회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북한 여성들의 20%가량이 온라인 성매매에 내몰리고 있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함.
- WP는 라오스에서 만난 탈북 여성과 박모 씨라고만 신원을 공개한 탈북 브로커의 말을 인용해, 인터넷 영상채팅 시스템을 악용해 이뤄지는 온라인 성매매에 북한 여성들이 인신매매업자 등에 의해 강제로 내몰리는 경우와 생활고 때문에 나서는 경우 등이 뒤섞여 있다며 이같이 전함.
- 미국 국무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연례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의 중국 항목에서 “북한 여성들이 중국에서 업소에서 또는 인터넷을 통한 강제 성매매에 동원되고 있고, 유흥업소에서 강제로 서비스 제공을 요구받고 있다”고 지적함.

2016. 10. 20.

■ **北인권 현인그룹 회의, 다음주 뉴욕서 열려(연합뉴스)**

-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온 국제 인사들로 구성된 ‘북한인권 현인그룹 회의’가 다음주 뉴욕에서 열린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20일 보도함.
- 미국의 민간단체인 인권재단은 한국의 연세 휴먼리버티센터와 공동으로 오는 27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북한인권 현인그룹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힘.
- 현인그룹에는 이정훈 대사를 비롯해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마르주키 다루스만-비딧 문다폰 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 등 8명이 참여하고 있음.

■ **한미 北인권 협의채널 설치…총체적 대북압박 나선다(연합뉴스)**

- 미국 워싱턴D.C에서 19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결과 눈길을 끄는 대목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강한 억제전략과 함께 북한 인권 부분임.
- 한미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인권협의체를 발족하기로 함. 한미는 협의체의 세부 구성과 운영 방침에 대한 추가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임.
- 정부 당국자는 “앞으로 유엔에서 중요한 인권 관련 협의가 예정돼 있고, 북한 인권에 대한 안보리 협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함.

■ **러, 北노동자 해외송출 제한, 안보리 제재수단으로 적절치 않아(연합뉴스)**

- 러시아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논의되는 신규 대북 제재 결의에 북한의 노동자 해외 송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힘.
-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노동자 해외 송출 제한 방안과 관련한 연합뉴스의 질문을 받고 “러시아의 기본 원칙은 안보리 제재가 (북한) 주민의 생활을 건드리거나 타격을 주는 것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시함.
- 자하로바 대변인은 또 북한이 15일과 20일 연이어 중거리 무수단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잇달아 실시한 것과 관련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기존 결의 위반으로 국제적 비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러시아의 기본 입장”이라고 소개함.

■ **반 총장, 21일 유엔 총회에 북한인권보고서 제출(자유아시아방송)**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1일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한 우려를 담은 ‘북한인권 보고서’를 제출함.
- 반 총장은 제71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구금 시설에서의 심각한 인권 유린 등이 계속 자행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이 국제적인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함.
-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등에서 북한 인권을 정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임.
- 반 총장은 북한에 대해서도 유엔 보편적 정례검토 권고 내용 중 이행을 약속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길 것과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권고와 유엔 대북 인권결의 내용에 대한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도 촉구함.

2016. 10. 21.

■ **탈북단체, 대북전단 30만장 살포...미사일 발사 규탄(연합뉴스)**

- 탈북자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21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대북전단 30만장을 북으로 날려 보냄.
-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 7명은 이날 낮 12시 30분께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공터에서 대북전단 30만 장, 미화 1달러짜리 지폐 2천 장, 우리의 발전상을 담은 소책자 200권을 대형 풍선 10개에 매달아 북으로 띄움.

- 앞서 북한은 지난 15일에 이어 20일 오전 7시께 평안북도 구성시 방현비행장 인근에서 무수단미사일을 발사했으며, 두 차례 모두 발사 직후 폭발함.

■ 北인권실태 영화로 들여다본다..북한인권영화제 개막(연합뉴스)

- 제6회 북한인권국제영화제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극장에서 막을 올림. 오는 23일 까지 이어지는 영화제에서는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와 탈북자 문제 등을 다룬 6개국 15편이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 행사를 주관한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측은 “영화와 다큐멘터리 등 영상물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를 더 많은 시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라면서 “이번 영화제 이후 미주와 유럽에서 ‘북한인권영화 상영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힘.

2. 북한인권 내부동향

2016. 10. 19.

■ 北, 유엔서 “종업원 집단탈북은 유인 납치” 주장(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유엔총회 산하 위원회에서 지난 4월 북한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 망명 사건과 관련, 남측이 유인 납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이날 “조선 대표가 11일 유엔총회 제71차회의 3위원회 회의에서 안건 ‘여성진보’ 토의시 연설하였다”면서 이같이 전함.
- 아울러 북한 대표는 “일본군 성노예 범죄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일본이 20만명에 달하는 조선 여성들을 비롯하여 아시아와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의 수많은 여성들을 일본군 성노리개로 만들어 그들의 인권을 유린한 특대형 반인륜범죄”라면서 “하지만 일본은 지금껏 그에 대해 사죄하기는커녕 저들의 범죄를 부정하면서 교묘하게 덮어버리려 하고있다”고 비난함.

3. 북한인권 남한동향

2016. 10. 17.

■ 정부, 탈북민 지역사회 역할 확대 방안 검토(연합뉴스)

- 탈북민 3만 명 시대를 앞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새로운 정착 지원 정책으로 탈북민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짐.

- 정부 관계자는 17일 “사회통합형 정책 마련을 위해 사회 전반을 돌아보고 있다”며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에서 탈북민을 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함.
-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을 막론하고 지역 커뮤니티에서 탈북민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세부 정책은 정부 부처, 정치권,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강조함.

■ 이정훈 북한인권대사 첫 행보…체코서 北문제 공론화(연합뉴스)

- 이정훈 신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체코 프라하를 방문해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행보를 시작함.
- 외교부는 이 대사가 오는 18일 체코 프라하 괴테 연구소에서 열리는 ‘북한의 미래: 민주주의와 인권 전망’ 세미나에서 연설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힘.
- 이 대사의 체코 방문은 대사 임명 이후 첫 해외 방문임. 이 대사는 연설에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 실태를 알리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당부할 예정임.

2016. 10. 20.

■ 외교부, 윤병세 2007년 北인권결의 회의 3회 참석…쪽 찬성(연합뉴스)

- 외교부는 윤병세 장관이 ‘송민순 회고록’으로 논란이 된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 관련 정부내 회의에 수석 비서관 자격으로 3차례 참석했으며, 줄곧 결의안에 찬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20일 밝힘.
-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장관으로부터 들은 내용이라며 윤 장관이 2007년 11월 15일과 16일, 18일 각각 열린 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힘.
- 조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윤 장관은 당시 그 결의안에 대해서 줄곧 찬성하는 입장이었다고 한다”고 덧붙임.

■ 홍용표, 전시납북자는 해결해야 할 인륜·천륜 문제(연합뉴스)

-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20일 “전시납북자는 분단의 이픔을 치유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인륜과 천륜의 문제”라고 밝힘.
- 홍 장관은 이날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열린 ‘6·25전쟁 납북자기념관’ 착공식 기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히 납북 사실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은 가족을 잃은 슬픔과 사회적 편견에 고통받아야 했던 납북자 가족들에 대한 최소한의 위로이자 명예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말함.

- 홍 장관은 “더욱이 (북한은) 미사일 시험과 핵실험을 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 민족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의지를 하나로 모아서 북한의 잘못된 생각을 꺾어야 이 땅에 평화와 자유가 넘칠 것”이라고 강조함.

■ 이정훈 대사 “北인권탄압, 테러같은 국제사회 공동문제”(연합뉴스)

- “북한 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 인권 문제가 테러리즘과 마찬가지로 국제 사회 전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글로벌 문제임을 공론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정훈 초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유럽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알리고, 공론화하는 활동을 본격화하고 나선.
- 이 대사는 19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이탈리아국제연구소(CECI)와 뉴스통신 ANSA가 ‘북핵 문제와 북한 인권을 주제로 공동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북한의 핵 위협이 국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이탈리아 정치권과 언론이 이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함.
- 그는 “북한 내부에서의 정치범 수용소 등을 통한 주민 탄압 뿐 아니라 해외 노동자 착취, 중국 등지에서의 인신매매 등이 망라된 북한 인권 문제는 더 이상 한반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제 사회가 테러리즘에 공동 대처하듯 인류의 보편 가치에 어긋나는 북한의 인권 탄압을 중단하기 위해 협력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함.

■ ‘6·25전쟁 남북자기념관’ 파주시 착공…내년 10월 개관(연합뉴스)

- ‘6·25전쟁 남북자기념관’ 착공식이 20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문신읍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열림. 착공식에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홍 파주시장, 6·25전쟁 남북자단체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함.
- 홍 장관은 축사에서 “전쟁 남북 피해자 문제는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남북자들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은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슬픔과 사회의 편견에 고통받아야 했던 남북자 가족들의 지난 세월에 대한 최소한의 위로이자 명예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밝힘.
- 남북자기념관은 국무총리실 소속 6·25남북진상규명위원회가 국비 등 총사업비 198억 원을 들여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내 경기평화센터 옆 1만1천155㎡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건물면적 4천521㎡) 규모로 건립하는 것임.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2016. 10. 16.

■ 1977년 납북된 일본인 마쓰모토 교코 평양 병원에 입원중(연합뉴스)

- 1977년 북한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알려진 일본인 마쓰모토 교코(松本京子, 당시 만 29세) 씨가 현재 평양의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최성룡 납북자 가족모임 대표의 주장을 인용해 16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마쓰모토 씨는 시력이 극도로 저하됐으며 통풍 합병증의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평양 적십자종합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최 대표가 평양 소식통의 이야기를 전함.
- 일본 정보는 2006년에 마쓰모토 씨가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라고 인정했으나 북한은 그가 북한에 온 적도 없다며 이를 부인함.

2016. 10. 17.

■ 고위층 포함 탈북 지속·北수해에 추가 탈북 가능성(연합뉴스)

-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을 향해 거듭 탈북을 권유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가운데 올해 북한 고위층을 포함한 탈북이 중국을 통해 지속해서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짐.
- 특히 최근 북한에 대규모 수해가 발생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추가 탈북 가능성도 제기됨.
- 17일 대북 소식통은 “최근 북한에서 수해가 났기 때문에 중국과 북한의 국경을 중심으로 걱정을 가지고 보고 있다”면서 “여러 소스를 종합해 볼 때 탈북은 지속해서 이뤄지고 있다”고 밝힘.

5. 대북지원

2016. 10. 15.

■ 北 수해로 설사병·급성영양실조 어린이 4배 증가(연합뉴스)

- 유엔은 북한 함경북도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설사병을 앓는 어린이가 한 달 만에 4배 증가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5일 보도함.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이날 ‘북한 수해 긴급 대응계획’ 보고서를 통해 황해북도 지역에서 지난 9월 한 달 5세 미만 어린이 설사 환자 수가 전 달에 비해 4배가량 증가했다고 발표했다고 방송은 전함.

- 유엔은 “앞으로 6개월간 북한 수해 복구를 위해서 2천890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현재 모금액은 목표액의 25%에 불과하다”고 주장함.

2016. 10. 17.

■ **北기아지수 2000년 40.4→올해 28.6 개선…여전히 심각 수준(연합뉴스)**

- 지난 2000년 이후 북한의 식량 사정이 좋아지면서 기아지수도 지속해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북한의 기아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됨.
- 유럽연합(EU) 전문매체인 ‘유랙티브닷컴’은 17일 세계 식량의 날(10월 16일)에 즈음해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 등이 최근 발표한 ‘글로벌 기아 지수(GLOBAL HUNGER INDEX·GHI)’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함.
-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북한의 기아지수는 28.6으로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됐음. 118개국 가운데 21번째로 나뉘었음.

2016. 10. 19.

■ **WHO, 北 수해지역서 설사병·급성호흡기질환자 늘어(연합뉴스)**

- 북한 함경북도 지역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한 직후인 지난달 초부터 설사병과 급성 호흡기 질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세계보건기구(WHO)를 인용해 19일 보도함.
- WHO는 북한당국의 자료를 인용한 ‘북한 수해 대응 상황 보고서’를 통해 “수해지역에서 설사병과 급성 호흡기 질환 환자가 계속 보고되고 있다”고 밝힘.
- WHO는 북한에 홍수로 파괴된 보건시설 복구를 위해 10평짜리 건물 320개를 세울 수 있는 분량(1만544m³)의 지붕 자재를 비롯해 임시 병원을 위한 천막, 긴급 보건 세트, 설사 치료제, 물 정화기, 신생아 긴급 구호세트 등을 지원했다고 밝힘.
- 또 수해 복구 종사자들이 과실품에 걸릴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북한당국과 함께 과실품 예방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함.

■ **덴마크, 北 수해 복구에 6만달러 지원하기로(연합뉴스)**

- 덴마크 정부가 북한 수해 복구 사업에 6만 달러(약 6천700만원)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20일 보도함.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는 최근 갱신한 ‘국제사회 대북 지원 현황 자료’에서 덴마크가 자국 구호단체 ‘미션 이스트’에 이같은 규모의 대북 지원금을 내놓았다고 밝힘.

- 앞서 덴마크 정부는 지난달 29일에도 덴마크 적십자사에 대북 수해 복구 지원금 10만 달러를 전달한 바 있음.